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월 12일(주일) 제1278호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18기 온누리 목회사관학교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18기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강원도 평창 컨벤션호텔리조트(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열린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주제로 R. T. 켄달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에서는 7번의 강의, 소그룹 나눔, 2번의 특강, 기도회 및 조별 나눔 등이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68명(전임 205명, 파트 16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목회사관학교 주강사 R. T. 켄달 목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트민스터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했다. 온누리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철학과 비전, 사역방향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며 영성 회복을 경험하는 장(場)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가 18번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2020년 선교헌금 작성 ...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 올해 온누리선교 다문화가정 자녀, 난민, 이주민사역 집중

오늘(12일)은 ‘2020년 선교헌금 작성’ 마지막 날이다. 선교헌금 작성,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성은 예배에서 나누주는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증액후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25일이다. 현금 봉투로 선교헌금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중보기도, 재능기부도 선택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성서 해당란에 표시하

면 된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다문화가정 자녀 섬김, 난민사역, 이주민사역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안산M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M센터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다문화대안교실과 다문화대안학교 설립도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52.8%(62억), 선교사역비 35.2%(41억), 기관지원 8.9%(10억), 운영비 3.1%(3억6천만 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올해는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직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관련기

사6면>.

온누리교회는 75개국에 선교사 874명을 파송했다. 동아시아 381명, 남아시아 198명, 중앙아시아 24명, 소아시아 37명, 중동 75명, 아프리카 63명, 유라시아 37명, 오세아니아 6명, 북미 20명, 중남미 29명 등이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 4명은 발령 대기 중이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 <ON편지>, 목요선교집회, 시안열방예배, 선교중보기도모임 등에서 선교지 소식을 확인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16(선교헌금 작성)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오늘(1월 12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주일 7부 예배(오후 9시), 부천, 수원, 대전 주일 6부 예배(오후 7시), 남양주 주일 4부 예배(오후 7시), 평택 주일 3부 예배(오후 2시), 강동 주일 4부 예배(오후 4시), 양지 주일 3부 예배(오후 2시 30분)를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로 드린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새 예배당 입당 이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린다. 1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면 신약성경을 완독할 수 있다(누가복음 제외).

캠퍼스	예배시간
서빙고	주일 7부 예배, 오후 9시
양재	주일 7부 예배, 오후 9시
부천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수원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대전	주일 6부 예배, 오후 7시
남양주	주일 4부 예배, 오후 7시
평택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강동	주일 4부 예배, 오후 4시
양지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30분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5:1~9(1월 15일 본문)

본문 주제: 은혜(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 받는 이를 치유하시는 참 소망의 주님입니다)

영상제목: 내가 약할 그때에 - 이재훈 목사

내용: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결국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적용질문: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QR 코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온누리교회: 온라인(www.onnuri.org), 목회행정실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전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

문의: 교회 02-3215-3265

CGNTV 02-796-2243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1. 공동체 성경읽기

새해에는 공동체 성경읽기!

모세부터 사도 바울, 예수님이 해온 성경읽기 방법

온누리교회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공동체 성경읽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읽기는 마음처럼 쉽지 않다. 오죽하면 새해 대표적인 작심삼일 포부가 성경일 독일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다. 혼자서 한다면 말이다. 성경을 1년 내내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싹트는 사랑은 덤이다. 오늘(12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성경읽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 공동체 성경읽기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약 성경(누가복음 제외)을 완독할 수 있다.

성경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벧전 1:17).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갓난아기들은 어미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기들처럼 크리스천은 하나님 말씀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다.

왜 공동체 성경읽기인가?

그렇다면 왜 공동체 성경읽기일까? 공동체 성경읽기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일까? 공동체 성경읽기는 혼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읽는 또 하나의 예배다. 공동체 성경읽기의 역사가 매우 깊다. 구약의 모세부터 사도 바울, 예수님이 해온 성경읽기 방법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애굽 생활에 젖어있던 폐해가 컸다. 노예근성에 젖어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만 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과 명령을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했다(신 5~6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신 5:1).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들었다(수 9:30~35).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 모였다는 기록이 없다.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듣는 일상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사명, 부르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급기야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다.

그러다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 때 공동체 성경읽기가 부활했다(왕하 22~23장). 요시아 왕이 성전보수를 하려 했는데 그곳에서 오래된 율법서가 발견됐다. 요시아는 율법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냈고, 홀다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했다. 재앙의 예언을 들은 요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내 말씀을 읽는 것이었다. 요시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 지키게 했다. 성경은 요시아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왕하 23:5).

사도 바울 또한 공동체 성경읽기를 강조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했다.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딤후 4:13).

여기서 ‘성경 낭독’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의미한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경읽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셨다. 예수님은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면서 두루마리 말씀을 펼쳐 읽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그 시간에 선포하셨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

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눅 4:16~19).

성 어거스틴의 회심, 그 결정적 계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 사상가이자 성자, 교회가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성 어거스틴은 한때 마니교에 심취했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 그 방탕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성경을 읽으라’는 목소리 덕분이었다.

“난데없이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는 후렴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게임이 있었던가 하고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 나는 그 책을 움켜쥐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눈이 처음으로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심한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고백문), 신국론(神國論), 삼위일체론 등을 저술했다. 후대 크리스천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허랑방탕한 탕자에서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으로 변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름 아닌 성경읽기의 힘이었다. 우리가 성경읽기를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물론 성경을 읽는 일이 쉽지는 않다.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많지만 대부분 바쁘거나 강제성이 없어서,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어서,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성경책을 아예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을 혼자 읽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읽으면 분명 다르다.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외롭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성경읽기도 마찬가지다. 새해에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신 6:6). 그것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소식

왕하 7:3~11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듣는 뉴스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듣고 전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누구나 의무로써 지켜야 하는 것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둘째, 듣고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어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셋째, 듣고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뉴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가장 먼저 알고도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다면 무거운 책임이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이 쳐들어온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뉴스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전해야 하는 뉴스가 있고,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있고,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하는 뉴스입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뉴스입니까? 역사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행 4:20).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전 9:16).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한 차원 깊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깊고, 체계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다른 복음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렸다면,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만큼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삼총사를 보았고, 하늘의 계시를 보았고, 깊은 복음의 계시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이 여겨지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한연쇄 하나님 나라 성장방식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살전 1:5).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확신은 물이 컵에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확신으로 임하는 것은 물이 컵에 차고 넘치듯이 복음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임했고, 복음을 모든 대륙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8절).

복음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넘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들려진 다’는 것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항복방송이 우리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우리나라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이 우리나라의 광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입니다. 정부가 해설방송을 하지 않았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아침 사람들이 급하게 만든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 ‘축해방’ 등 각양각색의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또 전달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불과 하루 만에 거리로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소식,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소식,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 되었다는 소식,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머무는 소식입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소식입니까?

마케팅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품을 소비해 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 상품의 소개자나 판매자로 전환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 상품을 소개하면서 판매가 넓어지는 무한연쇄 소개판매방식입니다. 이를 복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무한연쇄 하나님 나라의 성장방식이 전도와 선교 아입니까? 마케팅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기업 활동과 돈을 버는 원리 속에서도 올바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으면 말한

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면 목숨을 걸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를 자신만 알고 누리고 있었다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감동이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입니다. 전해야만 하는 소식입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소식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보는 주일이 바로 선교한신주일입니다.

구약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전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성은 고립되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울 능력도 없고, 성 안에서 버틸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문 밖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음식이나 구제품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문 앞에 있던 나병환자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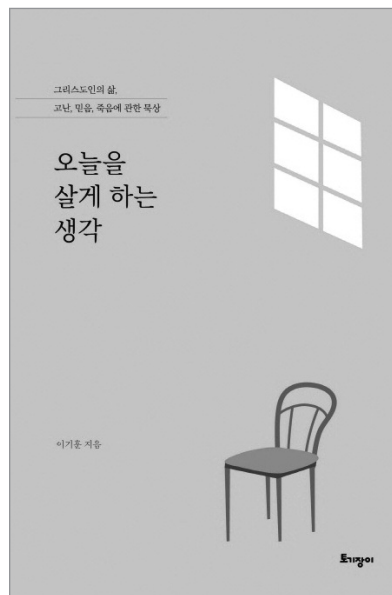
“이렇게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보자. 성 안에 들어간다 해도 기근이 심하니 죽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다. 아람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람군대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람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전차소리, 말발굽소리 등 거대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책 읽어주는 목사

그래서 삶이 곧 미학이다



오늘을 살게 하는 생각
이기훈 저 | 토기장이 | 9,000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개의 점이 이어져서 한 줄의 선이 그려지듯 오늘 하루가 이어져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하루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삶의 가치를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게 하

셨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오늘은 결코 복된 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일에 얽매어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마 6:3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뒤에 그들 스스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백성들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를 자유하면서 살지 못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므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았다. 심지어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면 내일도 만족 없이 살게 된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과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보면 은혜와 감사,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신앙인의 삶 구성구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놓

여있다. 그리고 일상 속에는 그분의 다양한 내용의 섭리가 담겨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루를 사는 것과 모른 채 사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깊게 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생활이요, 동시에 성경적인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일상을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삶이 곧 미학이 되어야 한다.

책 〈오늘을 살게 하는 생각〉은 묵상과 시를 짝을 이뤄 묶어놓은 책이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삶의 지혜를 한 권의 일기장처럼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무심코 외면해 버리는 내용들이다 의미를 붙여 그려놓았다.

우리의 삶은 신앙과 가정, 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가 있는 삶, 노래가 있는 삶, 편지를 나누는 삶, 행복이 있는 삶, 고난이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삶, 목상이 있는 삶’ 등 일곱 가지로 나누어 기록했다. 독자들이 주목하면 좋은 키워드는 ‘관계’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 관계의 여부가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일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관계에서 경험되는 사랑의 소중함,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한 존재의 소중함을 그려놓았다. 삶은 행복과 고난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복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과 고난이 반복되는 여정에서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고난의 한 조각도 내게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타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쉬운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읽는 이들마다 공감은 물론 삶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상에서 직면하는 소소한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QT, 왜 꼭 해야 하나요?”

답: “우리 몸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어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QT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과거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일생 동안 ‘현재진행형’이며, 그 관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QT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경건훈련이다.

QT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점이다.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구원의 길과 삶의 원리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 QT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때로 하나님에게는 내게만 특별히 들려주실 음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QT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대화시간이 되기도 한다.

QT는 많은 분량이 아니라 날마다 적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바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삶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하루 일과 중에서 QT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모든 일을 그분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결단이다. QT를 최우선순위에 두면 내면세계의 질서가 세워져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QT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뿐 아니라 보화와 같은 전리품들을 얻는다. 두려울 때(사 41:10), 염려할 때(빌 4:6-7), 시험당할 때(고전 10:13), 지혜를 구할 때(약 1:5), 앞길이 막막할 때(잠 3:5-6) 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

비된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는 만큼 전능자의 복을 누린다.

우리 주변에는 눈을 조금만 돌려도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하다.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날마다 무엇을 가까이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실로 드러난다. 빛이요 생명인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면 선한 말과 인격,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면 세상의 언어와는 멀어지고 하늘의 언어, 성경의 언어를 지닌 사람이 된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

QT훈련은 결국 묵상훈련이다. 묵상의 힘을 깨우친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묵상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8-9).

아침에 QT한 것으로 QT가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묵상을 하루 종일 이어 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어느 곳에서든 자주 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나만의 묵상훈련 장치를 마련해 보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QT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일이다. 주님의 보좌를 중심에 둘 때 생명나무 열매들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을 공급받는 다. 다시 저주가 없

고 밤이 없는 인생을 산다.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후일 천국에서 누릴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우리는 QT를 통해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



장덕은 목사
(《생명의 삶》 편집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삶을 뒤바꾸는 커다란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면 된다.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를 질문하고 행동을 바꾼 이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길거리 쓰레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매는 요즘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있었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봐도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당연한 풍경으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당연한 풍경으로 여기던 길거리 쓰레기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질문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허리

를 숙여 쓰레기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 해답”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H형제는 올해 청년부 회장이 됐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내키지 않았다. 교회 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청년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이끌어 갈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 회장 자리를 피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했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예수님을 따라 H형제도 무작정 기도를 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H형제에게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셨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새롭게 세워질 청년부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H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기로 했다.

H형제에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게 된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게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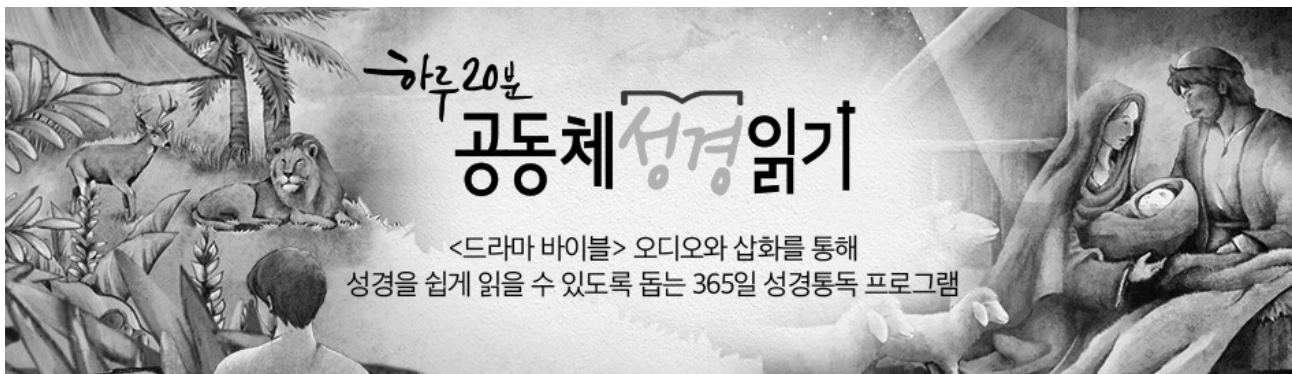
하자”는 말을 달고 살고 있다. 피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H형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철야예배를 ‘청년부가 함께하는 금요철야예배’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1월 첫 금요철야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의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

* 일상에서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한 사연들을 찾습니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온누리신문에 실어드립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성경읽기’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누가 뭐래도 가정예배의 핵심은 신앙전수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방법으로 ‘성경읽기’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추천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 말씀을 심은 자녀들의 마음 밭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날마다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읽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지금이 새해 초인만큼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성경통독을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맥체인 성경읽기표’, ‘드라마 바이블’ 등을 활용하면 지루하지 않게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 또한 CGNTV에서 방영하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청하는 것도 좋

다. 하루 20분 CGNTV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성경일독을 할 수 있다. CGNTV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40분, 주일에는 오전 6시 20분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CGNTV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성경읽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1년에 성경일독이 부담스럽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읽어도 좋고, 성경 각권을 나눠 읽어도 좋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읽은 성경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철저하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열린 질문, 놀이를 통한 활동, 말씀암송 등이 특징이다. 총 12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연령은 초등학교 3~6학년이다. 동반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자는 아버지가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부모나 어머니 등이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부모가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하면 실시할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내 영혼의 노래
본문 : 시편 57편 7~11절
찬양 : 목미론 사슴

메시지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은 어디든 쫓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피했습니다. 당시 굴은 동물들의 서식처였고, 화장실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첫째, 나의 노래가 마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과 위협을 받았지만 다윗은 마음을 이렇게 정합니다.

“오 하나님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시 57:7).

다윗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울며 탄식하기보다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시 57:8).

새벽은 누가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오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표현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둘째, 나의 노래가 선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분입니다. 많은 군사가 동굴에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한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부른 찬양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찬양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드린 선포의 찬양이 새로운 한 해 우리 입술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이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가

정의 고백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만 백성이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1월 12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성도님들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선교헌금 봉헌,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선교 동참



김홍주 목사
(2000선교본부장)

지난주(5일)에 이어 오늘(12일)도 2020년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선교헌금 봉헌,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주체”라면서 “2020년 선교헌금 작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온누리선교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가장 뜻 깊고 풍성한 열매는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완공한 것입니다. 온

누리교회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선교 경험과 목회 철학 등을 선교지 교회와 목회자, 선교리더십들과 나누면서 그들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중국과 인도 선교사님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50여 명이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교사님들의 재배치를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을 병행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선교적 비전을 따라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레바논에서 난민사역을 실시하기 위해 선교사님 10여 명을 파송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역과 사건들이 있

었는데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의 주요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난민사역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기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주민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섬기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각 지역 M센터에 선교사님들을 배치하고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선교에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과 난민사역입니다.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웃리치도 가고, 그들을 돕는 봉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동체에 결연된 선교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사역의 주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응원해 주시고, 아웃리치나 ODO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주시면 온누리교회 선교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정말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도 선교에 관심 가져 주시고, 선교헌금 작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보고 웹진
QR코드

2020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지 - 다문화가정 자녀들

“다문화가정 자녀 26만 명을 품자”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지가 또 하나 있다. 26만 명이나 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학교수제도 봐주고, 기회가 되면 나들이도 함께하자. 무엇보다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주민 선교와 더불어 차세대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선교가 아닐 수 없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안산 온누리M센터를 중심으로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OGA(Onnuri Global Academy)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겨나갈 예정이다.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26만 명이나 된다. 9세 미만 아동이 16만 명,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이 9만 4천여 명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재학 중인 학생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여럿이다. 앞으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 분명하다.

한국어,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영적 필요와 정서적 안정감 채워주는 사역이 우선

과거에는 이주민사역을 하면 이주민 노동자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 다음이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시대 이주민선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경숙 목사(안산 온누리M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돕는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 정서적 돌봄을 제안했다.

“많은 이주민들이 온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9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지내다가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한국에 와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이주민 부모들이 2교대나 3교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돌봄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나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섬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는 매일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35명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어 배우기도 하고, 부족한 교과목을 학습하기도 한다.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는 공부하는 곳이지만 가기 싫은 학원 같은 곳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놀이터에 가깝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역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성도님이라면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정원이 3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온누리M미션에서는 안산뿐만 아니라 평택, 남양주, 김포, 포천에 다문화대안교실 OGA(Onnuri Global Academy)를 열고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길 예정이다. 그에 따른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인순 교사(온누리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정감과 자긍심을 세워줄 교제와 돌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에텐 학생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 1월 2일 목요일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맹렬히 진노하신다

신명기 4:24, 출애굽기 20:2~7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곳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늘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매우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만 목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하실 수 없고, 용서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쏟아져

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만 분노하십니다. 죄와 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에 빠져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한 측면이자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을 이루는데 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받을 진노를 그분께서 받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맹렬히 진노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한이 없으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게 됩니다.

◆ 1월 3일 금요일

은밀히 숨어계신 분이 늘 가까이 임재하신다

이사야 45:14~17, 마태복음 6:3~6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숨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숨어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숨어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14절은 미래, 15절은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과정에서는 숨어계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크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숨어계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때마다 제한하고 감추셔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의 차원으로 나타내실 때 있는 그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 한

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을 맛볼 뿐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 않아서 배역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시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숨어계신 까닭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삶을 은밀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 두려워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는 우리의 은밀한 삶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뿌리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감춰질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늘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깊은 사랑이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 1월 4일 토요일

항상 일하시는 분이 안식을 누리신다

창세기 2:1~3, 히브리서 4:1~3

이재훈 목사

우리에게 일과 안식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은 고통이고, 안식은 즐거운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안식 가운데 계시고, 안식 가운데 항상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 이루어진 안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보여주신 말씀은

일이 고통이 아니라 안식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 복, 거룩은 삼위일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안식 없이 이뤄지지 않고, 거룩 또한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왜곡해서 실천해왔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행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인간에게는 쉬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일과 안식이 하나가 되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를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4장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안식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안식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켜야 합니다. 안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으로 연합하면서 일할 때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이기심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일과 안식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1월 6일 월요일

완전히 선택하신 분이 택한 자를 연단하신다

시편 66:10~12, 욥기 23:8~10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옳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을 때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의도하고, 목적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고귀하고, 클수록 연단이 큼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신 이후 다윗에게 왕궁이

아니라 광야가 주어졌습니다. 10여 년 넘게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던 또 다른 사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죽이시려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연단이 온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은과 금 같은 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시 66:10).

욥은 자신의 연단을 금을 연단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 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욥 23:10).

도금은 날카로운 것으로 굵으면 겉만 금이라는 걸압니다. 그러나 순금은 속이 다 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금 신앙일 때는 조그만 고통스런 일이 있으면 신앙이 아닌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금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순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으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연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히 12:6~11).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손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순금과 순은같이 정결한 영혼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 1월 7일 화요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신다

마태복음 6:6~7,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이재훈 목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십니까? 첫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직성은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정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이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의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마 6:6).

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문을 닫고 혼자 있다고 해서 영혼의 정직성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확실히 다른 때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과 마음으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진짜 내 모습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와의 대화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구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

음을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자신의 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셔도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알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고, 기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8일 수요일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약속에 매여 계신다

출애굽기 2:23~25, 예레미야애가 3:22~23

이재훈 목사

성경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룬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사람들을 택해서 언약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명령과 동시에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언

약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확장되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언약으로 찾아와서 이룬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 하지만 아브라함의 전생을 보면 세력이 확장되고, 아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일부분만 보고 갔을 뿐입니다. 아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대하게 됐습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워 할 정

도로 히브리인들이 창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순종하면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타락 이전 상태의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

는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창세기부터 달려온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실 때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인간과 언약으로 매여 계십니다. 반드시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9일 목요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주 작은 나를 아신다

이사야 40:25~31, 시편 139:1~4

이재훈 목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열방의 질서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삶을 볼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며, 심판을 하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 만물은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우상의 기원은 범신론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돌, 바다 등에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이 범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 일을 말한다면 예언이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흰 종이 가운데에 점 하나 찍혀있으면 우리는 그 점만 바라봅니다. 흰 종이의 넓은 여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

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흰 종이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에 검은 점이 찍히면 그 부분을 집중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신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생각,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볼드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의 삶과 생각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생물들이 어떻게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을까요?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긴다는 것을 법칙으로 설명할 뿐입니

다. 어떻게 안전하게 붙어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작은 순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고 지쳐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신 속에 있으면 그의 삶은 망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시고, 낙망하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가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월 10일 금요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연으로 찾아오신다

룻기 2:1~4, 에스더 7:7~10

이재훈 목사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과 맞물려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히 나타난 대표적인 두 에피소드가 룻과 에스더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선택합니다. 당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배타가 심한 문화 속으로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선택 때문입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성실하게 돌보려는 선택입니다. 당시 이사를 쭉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최하계층의 사람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룻이 일하게 된 발이 우연히 보아스의 발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그날따라

우연히 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룻을 보며 보아스가 감동했고, 룻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 섭리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세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개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개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에 6:1~3).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은 그날 밤은 우연이 아

닙니다. 모르드개는 왕을 살렸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개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반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물어둔 선험이 그를 죽이려던 하만에게 도리어 엄청난 폭탄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모르드개의 우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선택, 에스더의 충성스러운 선택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꾸준히 했을 때 한순간에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이 무기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전략이고, 최대 승리 비결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는 비결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쓰임 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임 기관장 인사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장로가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송 장로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섬기며,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와의 일문일답.



송영범 대표이사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먼저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온누리복지재단 이재훈 이사장님과 이사회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은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온누리복지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누리복지재단을 허락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누리복지재단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지재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정성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의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온누리복지재단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복지재단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12개 기관 260명 임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

고 성숙한 한마음공동체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이미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뻐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임기를 마칠 때 제 몸에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뒷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 새해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역장로회 소식지 원고 모집

2월 10일까지 근황, 기도문, 간증, 사역후기 접수

사역장로회 소식지 <갈렘네 이야기>에서 사역장로들의 원고를 모집한다. 근황과 기행(여행수기), 수상 및 기도문, 사역 후기 등을 적어서 보내면 된다. 원고 분량은 A4 2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관련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서 이메일(bark50@hanmail.net)로 2월

10일(월)까지 보내면 된다. 접수된 원고들은 3월 1일 제3호 <갈렘네 이야기>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봉래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는 “사역장로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풍성한 사역장로회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4176-3385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청년들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The One’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The One’이 지난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막 올랐다. 대학청년부 리더십(MC, 그룹 임원, 사역팀장, 순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이서진 목사(CH PLUS공동체),

정민영 선교사(WBTI 국제이사), 박현우 대표(이노레드)가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청년들에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진선 순장(SNS공동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러시아어권 이주민 연합수련회 ‘RUSTA’

1월 23~25일 Acts29비전빌리지

다섯 번째 러시아어권 이주민 연합수련회 ‘RUSTA’가 막 오른다. 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Holiness(거룩)’를 주제로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RUSTA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장(場)이다. 이번 RUSTA에는 주한러시아목회자협의회, 안산M센터,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글로벌코어 미니스트리 등 국내 30여 개 러시아교회에서 성도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 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3박4일 동안 디쇼어호텔 제주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에서는 건강한 떠남, 부부의 성, 대화법, 재정

관리,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다. 회비는 커피당 66만 원(항공료 별도). 문의: 02-2182-9114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에 관심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디션은 따로 없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졌다.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단일 교회 장로들로만 구성된 국내 유일한 합창단이다. 문의: 010-8967-5530

포에버성가대 대원 모집

포에버성가대 대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60세 이상 남녀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연습한다. 문의: 010-8968-7641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822	송준용	S브릿지	1138842	임주현	SNS	1138887	백수민	여호수아	1138911	서진교	W
1138823	허윤영	여의도	1138843	김지연	SNS	1138888	곽점숙	대전 동누리	1138912	김민숙	W
1138824	황유숙	인천 동누리	1138844	김동기	SNS	1138889	임용재	대전 동누리	1138913	유수미	W
1138825	전지우	강남B	1138845	황의철	경기A	1138890	호민경	여호수아	1138914	최은영	인천 서누리
1138826	한인숙	분당B	1138846	박희영	강남A	1138891	서보라	여호수아	1138915	유승민	부천 Dream Point5
1138827	조정훈	하늘	1138851	한소리	무공동체	1138892	피정연	여호수아	1138916	곽승화	부천 Dream
1138828	조승혁	하늘	1138852	윤상훈	부천 소망	1138893	김영준	여호수아	1138917	노소영	부천 Dream
1138829	선우진	하늘	1138868	황중성	이촌	1138894	김영지	여호수아	1138918	김진아	이촌
1138830	명재경	교양은평	1138870	임혜진	천왕사역공동체	1138895	이호민	여호수아	1138919	권오석	부천 Dream
1138831	나지영	S브릿지	1138871	박서영	S브릿지	1138896	이은정	양천	1138921	김세웅	인천 서누리
1138832	김나영	이촌	1138876	한수진	서초B	1138897	이희승	분당B	1138924	제이슨백	Bridge33+
1138833	박지영	서산온누리	1138877	이옥현	양지 동누리	1138898	박서연	하브	1138925	김유리	서초C
1138834	김태이	송파B	1138878	임기화	양지 동누리	1138899	이민정	하브	1138926	김향범	서초C
1138835	이병철	도곡	1138879	김영혜	Bridge33+	1138900	이호범	하브	1138927	김수향	대전 남누리
1138836	오은수	SNS	1138880	황희정	대전	1138901	김민성	하브	1138928	장새희	여호수아
1138837	유미소	SNS	1138882	김경진	이수	1138902	신정민	하브	1138929	김재욱	하늘
1138838	현창하	SNS	1138883	육경화	여호수아	1138903	신정현	하브	1138930	윤태현	Bridge33+
1138839	우승곤	SNS	1138884	최하은	여호수아	1138904	최한나	하브	1138931	오지연	양지 동누리
1138840	홍용건	SNS	1138885	김동윤	여호수아	1138905	조우신	하브			
1138841	이영기	SNS	1138886	신재석	여호수아	1138906	홍경식	남양주A			

서빙고 1월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19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 20분(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오후 3시 30분)		서빙고 (2019년 11월 10일~2020년 1월 4일수료자 / 양재 (2019년 11월 3일~2020년 1월 4일수료자)	
■서빙고 강사 박은정	마포 남상희 박시은	우선철 유종열	김현철 정지숙
	이혜진	성복	한강
	정환승	배진국	김소영
		조수연	신귀화
강촌 김묘선 신영임 유지형	북누리 김석주	신용산 양진경	이해랑
	이명종	오영은	임광수
관악금천 구윤희 김영근 김재욱 신동희 신혜옥 이진애 정문수	서대문 김미란	양천 이해옥	OCC 변병실
	강남 김진영	S브릿지 박은영	강남B 고은희
	윤의성	강수정	김양민
	정효성	김성은	김유진
동대문중앙 권한숙 윤정순 정기석	서빙고 김준희	이수 박정은	강남E 김지영
	성동광진 김명희	이촌 김나영	강남D 고기은
	김승원	홍유정	송송일
	김재욱	김정준	이재선
동작 김수연 서영숙	김현경 박찬미	중종로 김경희	강남C 박동아
	안세기		분당A 이순환
			분당B 곽영미
			김순애
신미정 양지연 이창수 최은영	송파B 강경실	김태이	양재 김소영
			김정임
			박혁상
			정정자
하진수	하나 윤서이	최병윤	최정혜
	한지혜	허명학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후기



/ 한신 형제(CH PLUS공동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CH PLUS공동체는 지난 12월 '사랑앓나눔 사역'을 통해 등대군에 있는 등대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등대교회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다.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쪽방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좁고, 열악했다. 발을 온전히 뻗을 수가 없었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이 다수였다. 그곳에는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곳의 환경만 바라보면 불만과 고독, 외로움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관심, 복음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열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은혜로웠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것이 전부였다. 등대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짧은 시간 기도해드리는 것이 다였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진짜 목회란 무엇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쉬운 목회는 없지만 조금 더 수월한 목회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됐다. 주님의 거룩하신 흔적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 예수님의 자녀 됨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번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친히 섬겨주셨다. 슬픈 자와는 함께 울어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다. 사랑을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

예수님의 자녀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우리는 모든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택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참 제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아브라함 선교사(남아시아 1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학교는 10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척박한 땅 M지역(인구 340만)에 세워졌습니다. 4년 전 정부인가를 얻어 매년 20명 정도의 졸업생들을 미전도(복음) 지역으로 파송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M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가는 일은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법과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고, 영적, 육적으로 무장되는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가 있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금요일은 금식기도와 채플로 영성을 다지고, 성경읽기와 성경암송대회 등을 통하여 전도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선교훈련이 의무사항이고, 6개월 정도 열악한 사역현장에 가서 섬기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후원자들의 도움과 기도로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 명의 졸업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뢰하며 남아시아 1국 미전

도지역에 흠뻑 빠져서 활발하게 교회개척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들은 각 학교로 파송되어 어린 새싹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이러한 결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양질의 교수를 확보하고자 2년 전부터 5명의 졸업생을 대학원에 보내 교수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배우고 훈련되어서 후학을 잘 양성하는 믿음의 교수들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몇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트북입니다. 1인 1노트북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트북 85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노트북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인 1노트북을 확보하면 원격인터넷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영성관련 서적도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 용도로 구입한 부지 재허가를 추진 중인데 조속히 허가되어 신학교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트북 후원: 010-7236-2872

두란노어머니학교 '여주 19기 가족캠프'



/ 하순옥 사모(평동교회)

눈물 없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작년 소망교도소에서 어머니학교 '여주 19기 가족캠프'가 열렸다. 지원자 50명, 아기 6명, 스태프 16명이 참석했다. 눈물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였다. 수감자인 지원자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면 가족들이 볼을 부비면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이게 가족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 지원자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 둘이 찾아 왔다. 11살 된 딸아이가 수감자인 아빠를 붙잡고 얼마나 울던지 그 모습이 생생하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보낸 편지를 나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랑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빠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나는 14살, 아빠는 40살이 되겠지. 아빠가 나오면 내 14번째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나는 아빠가 나오기 전에 엄마랑 나랑 다른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엄청 많이 남기겠지. 그런데 아빠랑 나랑 단둘이 캠핑도 가고, 엄마랑 아빠랑 셋이 쇼핑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빠랑 떨어지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난 아빠랑 떨어지지 5년은 지난줄 알았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어제는 학교에서 남한산성을 갔는데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아빠가 있으면 단숨에 확 올라 갈 텐데 아쉬웠어. 나중에 아빠랑 같이 남한산성도 가고, 캠핑도 가고, 이것저것 아주 많이 하고 싶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만 꼭 참고 기다릴게! 얼른 와!

모든 순서가 끝나고 퇴장하는 지원자들과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가족들이 "힘내라!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소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외침에 지원자들은 "성실히 마칠 것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듯 했다. 아들, 아버지, 남편, 혹은 형, 오빠를 남겨두고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긴 여운이 남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다. 수감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학교가 아닐까 싶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가 보낸 편지



/ 안명철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당신과 결혼 한지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당신과 연애할 때 안양의 딸기밭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자리 잡은 곳에서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도 의심되지도,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리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나를 위해 당신은 찬송가를 펼쳐주고, 헌금도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첫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시집은 이후 우리 가족은 물론 주변의 많은 친척까지도 수십 명이 교회를 나가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보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고 예쁜 딸 하나를 주셔서 잘 크게 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과 또 믿음이 좋은 사위와 귀여운 세 명의 손자도 허락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돕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요새 <생명의 삶> 큐티를 거의 매일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만으로도 벅칩니다. "말씀과 기도는 열차의 좌우 바퀴와 같아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탈선할 수 있으므로 말씀을 상고하는 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이다음 하늘나라에 우리 함께 큰 상급을 받도록 힘을 씁시다. 사랑하는 여보,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장로칼럼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박공 장로
(신원산공동체)

나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택시사업조합의 노사담당 임원으로 노사 업무를 관장한 적이 있었다. 조합 산하 225개 회원사가 있었는데 90년대 전후는 노사분규가 빈발하게 일어날 때였다. 그 시기 항상 내 머리 속에 맴돌고 있었던 의문은 ‘하나님께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과연 어느 편에 서실 것인가’와 ‘전쟁과도 같은 노사분규에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였다.

노사교섭 테이블에는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 교섭위원 중에서 한두 명씩 크리스천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매년 있었다. 개중에는 중직(重職)자들도 있어서 각자 자기 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필자가 매우 간편하게 회고했지만 실제상황은 노사양측이 생사를 걸고 하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태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성경적 응답이 꼭 필요했다.

성경적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 어느 쪽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사 어느 한 편의 손을 드신다면 다른 한 편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내분과 크리스천 가정에서 부부간의 심한 싸움이 유행은 다르지만 양편 모두 크리스천들이 있을 경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노사분규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이라도 손을 드신다면 분명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생명의 말씀사)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확신하게 되었다. 1862년 9월 17일 앤티탐

(Antietam)전투는 합중국 역사상 단일 전투로서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 양군 합쳐 약 23,000명의 손실이 발생한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를 거두자 링컨이 부대를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그때 한 참모가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알려 주셨다네.”

결국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 이후 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휘몰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하여 기도와 직장 선교활동에 총력을 다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직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매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노사평화가 이루어졌다.

1997년 회원 12명으로 창립된 기독교사업자선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회원 15명에서 20명가량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다. 우리의 모임이 직장선교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주신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와 고민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해야 한다.

권사칼럼

나는 물고기와 보리떡



황윤정 권사
(서초A공동체)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사역 어머니 학교를 섬기게 되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남 앞에 서는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다. 수줍음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내게 2005년 1월 본부에서 진행된 어머니학교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올려진 물고기와 보리떡이었다. 본부 25기는 내가 진행자로 처음 섬긴 어머니학교였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짧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긴장하는 시간이 짧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다. 당시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

나는 눈물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다. 그런 나를 진행자로 세우기 위해 본부에서는 당시 최고의 진행자와 경험이 많은 자매들을 어시스턴트와 팀장으로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셨다. 그런데 진행을 앞두고 함께 하기로 한 두 자매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나를 돕지 못하겠다고 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 사람의 지지하고 있던 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1-2).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

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김의 베테랑들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헌신자들을 붙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학교 사역을 찬양팀장부터 시작했다. 그때 역시 두려운 마음이 커서 도망다녔더니 본부장님이 “찬양팀장은 말이 필요 없어요. 찬양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나를 다독였다. 그 말만 믿고 찬양팀장을 맡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시간이 많았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 멘트부터 찬양 중간 멘트, 율동 멘트, 마무리 멘트까지 말을 많이 해야 했다.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말들이었지만 겁이 많던 나는 악보 위에 멘트를 빼곡히 적어두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연습과 기도뿐이었다.

“저는 주님 손에 올려진 보잘 것 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역이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에 기쁨을 부어주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다. 연약한 만큼 더 무릎을 꿇게 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고기와 보리떡 같았던 나를 변화시키셨다. 연약한 나를 이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도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들을 안겨 주었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손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이광수 선교사
(뽕골M센터 뽕골어예배)

몽골 이주민 공동체를 섬기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 하나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이혼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혼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상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절망감에 짓눌린 채 겨우겨우 살아간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재혼이다. 막연한 기대감에 또 다시 인생의 전부를 건다. 이미 실패했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서로의 약속과 사랑고백을 여과 없이 또 믿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울란바토르대학 가정학과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술과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경제

적인 이유에 따른 별거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혼’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준비 없는 결혼’이다.

무엇이 결혼 준비인가? 결혼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서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다. 남자는 아파트, 여자는 혼수용품이 아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맹세이고, 가족들 앞에서의 약속이다.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갈리고, 수용하는 과정 가운데 이질감을 극복해야 하는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다. 반쪽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둘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가정을 따듯하게 만드는 온돌이 된다.

누군가 “개는 이를 털면 끝난다”고 했다. 이 말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감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의

근사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미다. 결혼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형시키고, 짓누를 충분한 무게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인류지대사이다. 결혼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진정한 결혼준비는 아파트가 아니고, 근사한 혼수도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겠다는 결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겠다는 성숙한 생각이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양가 어른들에게는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가정을 이룰 때 가족공동체로서의 순도와 점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진행된 뽕골 이주민 공동체 하나님의가정훈련 학교(이하 하가훈)는 의미가 깊다. 수원 온누리

교회 하가훈팀의 섬김은 몽골 이주민 공동체 20가정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하가훈을 8시간으로 줄여 진행한 ‘미니 하가훈’이었지만 뽕골 이주민 지체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DISC검사와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서로 다르게 지음 받았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배움을 통해 작은 일에도 질책하고 화를 내던 부분에 대해 서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를 배웠는데 지체들의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열 가지를 배우면 얼마나 근사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지 기대된다.

올해에는 더 많은 이주민 공동체 가정들이 하가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이주민 공동체에 성경적인 가정을 이식하고 있는 수원 온누리교회 하가훈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소식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거대한 지원군이 온 줄로 착각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줄행랑을 친 것입니다. 나병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급하게 도망한 나머지 물건과 음식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나병환자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천막에 들어가 우선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값진 보화와 옷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병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9절).

나병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가져오는 기쁨과 좋은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의하여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격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새해 첫 주는 선교현신주일로 지키며, 나병환자들의 깨어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어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경험과 반응 그리고 원리

나병환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경험과 반응과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갇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와 세상에 갇혀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 갇혀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둘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나병환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체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체험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나의 발견이 아닙니다. 나의 분별력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넷째, 나병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양심이 깨어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할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벌하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마리아 성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니까? 최초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도 아니요, 군대도 아니요, 힘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던 연약한 나병환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지만 용기 있게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첫 번째 증거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만 있다면, 복음이 주는 축복을 알면서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깨어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람진영에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듣고 체험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사 10:9).

온누리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힘껏 외치는 선교사역이 힘 있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



노규석 목사
(온누리M이션 담당)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부담을 나누기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 주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GRF 2019)’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롯해 123개 UN회원국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제 NGO 및 인도주의 단체관계자, 난민 등 3천여 명이 모여서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토의하였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연설 시간에는 제네바 UN본부 정문 앞에서 쿠르드인 수백 명이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침공에 대한 항의 시위를 열면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 정부 인사들과 KOICA, KCOC 난민관련 실무진, 다양한 한국 NGO들의 리더들과 실무진들이 참여하였다. 온누리교회에서는 NGO 더멋진 세상(Better World)이 UNHCR의 협력파트너(Operating Partner) 자격으로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 세상 CEO), 고대선 실장, 필자가 참석하였다.

포럼 기간 중에 김광동 장로님은 UN난민기구(UNHCR) 아프리카 대륙 담당관인 클레멘틴 국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NGO 더멋진 세상이 지난 수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부드리 마을에서 약 1만 명의 남수단 난민들을 돕고 있는 구호사역과 난민들을 위한 학교 건축 등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향후 부드리마을 인근 2개 마을에서 약 3만 명 난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특별대담에서는 NGO 더멋진세상과 UN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관계를 난민구호사역 현장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NGO 더멋진세상은 UN난민기구(UNHCR) 협력 파트너(Operating Partner)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난민구호사업을 통해 신뢰관

계를 발전시켜 앞으로는 UN난민기구(UNHCR)의 시행 파트너(Implementing Partner)로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

UN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의 다양한 NGO와 비영리 기관들에게 총체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2000년 전 이 땅의 죄악과 고통 받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아끼 예수님을 이 땅으로 파송하셨다. 아끼 예수님은 태어나 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해 난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NGO 더멋진세상은 정치적 폭력, 핍박, 굶주림 속에서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 온 아끼 예수님과 같은 난민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번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았다. 또한 난민선교에 있어서 삶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총체적 선교의 융합과 다른 NGO와 국가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

UN난민기구(UNHCR)와 적십자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480여 년 전 제네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있었던 존 칼빈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제네바가 존 칼빈을 비롯한 프랑스 난민들, 존 나스와 영국 난민들, 심지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난민들까지 몰려왔던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제네바교회에서 다양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존 칼빈은 프랑스 난민구호기금과 구호병원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온누리교회가 NGO 더멋진세상을 설립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것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죽음의 위협 속에 고통 받는 수많은 난민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난민들을 살려내고, 난민 어린이들의 미래를 살려내는 총체적 선교로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뜨거운 후원이 더욱 필요하다.

NGO 더멋진세상과 총체적 선교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20년 1월 12일(주일) | 제1278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철희 목사(010-2937-8799)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홍수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남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랑 707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두란노아버지학교 154기 지원자 모집 일시: 2020년 2월 1일~29일 매주 토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원 접수: 02-2182-9100,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박만상(010-2657-1875) 더멋진세상 유튜브 청년 홍보대사 모집 모집: 영상 편집, 제작이 가능한 청년 문의: 070-4402-2718 shpark@abetterworld.or.kr 더멋진세상에 해외봉사단 모집 과건곡: 우간다 모집: 2명(공공행정, 교육) 기간: 2020년 3월~2021년 3월 문의: 이기일PM(02-2271-2246), gail@abetterworld.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 참고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CMN 라파뎔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2주차 주일 오후 2~5시 장소: 안산M센터 모집: 일반 봉사(접수, 안내), 약사, 치과의사 문의: 손현석(010-3485-5893)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	--	---	---	---

|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은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
|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 인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5, 12, 19, 26: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셀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서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

2020년 1월 12일 선교헌금 작성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선교 재능기부 접수

1. 현장 접수 (2020년 1월 12일) :
온누리교회 서빙고 1층 로비 / 양재 사랑홀 로비 /
각 캠퍼스

2. 온라인 접수 (연중 접수 가능) :
재능기부 QR코드 참조 <https://han.gl/CL3Ra>



3.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 QR코드와 짧은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선교재능기부 문의 02)3215-3211, 3212

선교헌금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